



소득 기준만 맞으면 ‘창작준비금’ 지원받는다

제주도, 올해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제도 개편
예술활동계획 심의 없기로… “우열 안 가릴 것”

제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올해부터 별도 심사 없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도 한정되지 않으면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이다. 제주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도내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복지지금을

활용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 예술인 621명이 지원받았다.

그러나 해마다 지원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매년 경쟁률이 평균 2 대 1로, 신청자의 절반은 떨어지는 구조였다. 지난해에는 신청자 337명 중 180명만 지원받았다. 예술활동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제도 개편

으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2026년도 기준 1인 가구 월 307만7086원)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모든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예술활동계획서를 제출받기는 하지만 이를 심의하진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소득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뀐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획서는 동일하게 제출받지만, 이를 심의해서 우열을 가리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다만 2년에 한 번 200만원을 지원하던 방식이 매년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올해 지원을 받아도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달라진 제도는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은 현재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8월 26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예술인이다. 올해 1월 이후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이력도 있어야 한다.

신청이나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제주문예재단에 전화로 예약한 뒤 제주예술인복지센터(제주시 중앙로 14길 18 1층)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예재단 누리집(www.jf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진한 묵향으로 맞이하는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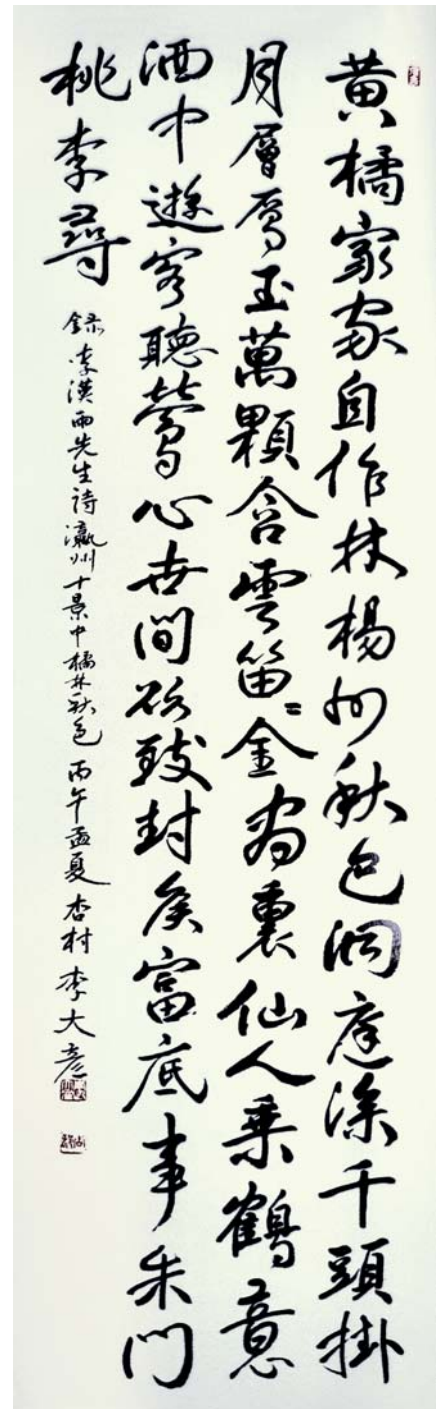
제12회 월봉묵연전 5일부터
‘선현들의 일을 기린다’ 주제

‘집집마다 누런 굴 저절로 숲을 이루니(黃橘家家自作林 楊州秋色洞庭深)’ / 동정호 가의 양주인 듯 가을빛이 깊었네(楊州秋色洞庭深)’. 제주에서도 유독 경치가 빼어난 10곳을 가리키는 ‘영주십경’. 19세기 제주 유학자가 읊었다는 이 시를 진한 먹글씨로 노래한다. 오는 5일부터 제주도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제12회 월봉묵연전’에선 막강 가독한 영주십경이 펼쳐진다.

전시에는 월봉묵연회 회원 18명의 서화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을 지도한 월봉 김상헌 선생도 찬조 출품한다. 월봉묵연회는 2015년 창립한 단체로, 2017년 첫 회원전을 시작으로 전시를 잇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선현들의 일을 기린다’다. 제1경 ‘성산일출’부터 마지막 ‘고수목마’까지 따라간 먹글씨 작품 10점이 회원들의 붓의 변주를 감상하게 한다. 변재전 월봉묵연회장은 전시 인사말을 통해 “도내 유적지와 명승지를 소재로 한 선현들의 영주십경을 국전지에 작품화해 전시하는 데 더욱 의미가 깊다”고 했다. 전시는 10일까지.

김지은기자



이대연 작 ‘굴림추석’.

월봉묵연회 제공

현실 속 충만한 낙원 시몽갤러리 30일까지 작가 예미킴 개인전

하얀 토끼 같은 정령들의 바깥 놀이와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그저 섬과 휴식만이 놓이는 이곳은 일찍 환상 같기도 하다. 작가 예미킴의 작품 ‘피크닉’은 불안 가득한 현실에서도 충분히 낙원을 마주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예미킴 개인전 ‘MiMoN’ (미몽)이 제주시 시몽갤러리북카페(원노

형로 16)에서 열리고 있다. 시몽갤러리의 기획초대전이다. 전시에선 작가가 키우던 토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정령 ‘미몽’이 인사한다. 우주와 자연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미몽은 불안을 잠재우는 평화의 안내자다.

시몽갤러리는 전시 소개를 통해 “작가는 민들레, 반려 토끼처럼 가장 사적이고 다정한 기억을 엮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에 대답한다”며 “우리는 이미 충만한 낙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김지은기자



예미킴 작 ‘피크닉’.
시몽갤러리 제공

문화가 쏙지

▷제주현대미술관 생태미술 교육 프로그램=생태계 지킴이 ‘꿀벌’의 생김새와 특징은 물론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아보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꿀벌을 만들어 보는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꿀벌 실종 사건’이다.

자율 참여 방식으로 두 가지 만들기 체험이 준비됐다. 미취학 아동도 참여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5시 30분에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현대미술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비는 무료이며 내년 2월 14일까지 계속.

▷한림작은영화관 ‘화목한 주말’ 기획전=이달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우리동네 씨네맛집’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모두 10회에 걸쳐 영화 11편을 상영한다. 한림작은영화관이 ‘영화진흥위원회 ‘작은영화관 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이다.

제주 특화 색션에선 오명 감독의

신작 ‘노르웨이산 고등어’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오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만남도 예고됐다. 영화 관람료와 프로그램 참가비는 모두 무료다. 단, 모든 상영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련 내용은 한림작은영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당미술관 전시지 탄생 100주년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기당미술관×사진가 김동연의 필드노트’를 운영한다. 전시지의 예술세계를 서

귀포의 자연과 장소로 확장한 체험형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이다. 김동연 작가와 함께 서흥동 변지 그림정원에서 시작해 솜반천, 하논분화구 등을 걸으며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차별 15명씩 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당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4-733-1586. 김지은기자

김장훈의 제주 원맨쇼 이달 27일 아트센터

가수 김장훈이 제주를 찾는다. 오는 27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2026 김장훈 전국투어 콘서트: 원맨쇼’를 통해서다.

공연에선 ‘나와 같다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고속도로로망스’, ‘사노라면’ 등 오랜 시간 대중과 함께해 온 김장훈의 대표곡을 만날 수 있다.

공연 제목처럼 콘서트는 한 편의 ‘쇼’처럼 구성된다. 매 공연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퍼포먼스와

특유의 입담을 만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전망이다.

공연을 주최하는 극단트렁크는 지역 업체와 함께 만드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공연 티켓을 제시하면 도내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극단트렁크명은 “공연장에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 업체와 관객이 함께 즐기고 혜택을 나누는 공연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공연은 당일 오후 6시부터 약 120분간 진행된다. 티켓 가격은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이며, 청소년은 전석 2만원이다. 예스 24 등 주요 온라인 예매처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합격 제42회 입법고시



이 예 슬

남녕고 25회 졸업,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 : 이창건(감산리), 모 : 양혜경(강정동)

제42회 입법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정 외가 일동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이모부)

임용 서울대 화학부 교수



한 상 수

(오원고 42회)
부 : 한석윤 · 모 : 김수덕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삼촌 일동

2026년 이어도문화의식제고사업

제12회 2026 이어도축제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와 미래세대의 한마당

2026년 9월 12일 (토) 12:00 - 20:00

연동 누웨마루거리 야외특설문대

주최 / 주관

후 원

이어도 청년지원이
크리스 제주특별자치도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